

우리나라 건축계의 건축도면에 대한 단상

A Few Ideas for Architectural Drawings of Korean Architectural Community

서언

1990년대 이후 CAD를 이용한 도면제작과 컴퓨터 저장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건축도면은 관리하기 거주장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 또는 사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건축도면을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의 하나로 취급하지 않았다¹⁾. 그 결과 이미 수많은 건축도면이 이 세상을 하직했으며 그나마 스캔이 이루어진 것도 원도는 사라진 채 디지털 자료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건축아카이브의 구축과 건축박물관의 건립에 대한 논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건축계의 일각에서는 건축도면의 가치를 재평가 하고 정리하는 등 일말의 희망이 엿보이고 있다²⁾. 여기서는 현재 우리나라 건축계의 건축도면에 대한 연구성과와 보존 상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경험을 언급함으로써 건축도면의 미래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건축도면에 대한 학술연구의 동향

한국에서 건축도면과 관련하여 학술적인 분석을 시도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전통건축에 대한 <조선시대영전의례(朝鮮時代營建儀軌)의 건축도(建築圖) 연구>박익수, 전남대박사논문, 1994년)와 근현대건축에 관한 <한국건축설계도면의 변천에 관한 연구>(이안, 인하대박사논문, 1999년)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전통건축의 영건과정을 기록한 서적에 보이는 건축그림의 유형을 분류하고 표현방법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자는 현대적인 방법에 의해 제작된 건축도면을 처음으로 다룬 논문이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삼아 기본적인 건축도면(建築圖面) 이외에 구조도(構造圖)와 설비도(設備圖)는 물론 상세도(詳細圖)까지 다루고 있으며 그 변화양상도 추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록에는 해방 이후 설계도면목록(設計圖面目錄)과 건축잡지(建築雜誌)에 소개된 설계도면목록을 수록하고 있어 건축도면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뒤를 잇는 연구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1945년 이전 일

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근대시기의 건축도면도 목록만 작성되어 있을 뿐 전시의 기회를 갖거나 연구의 성과물이 나온 바가 없다.

2)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필자 : 한동수,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by Han, Dong-soo

한동수 교수는 1979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입학하여 1984년 학부를 졸업하고, 1986년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 후 대만으로 건너가 1994년 국립대만대학에서 중국 청대 도시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1998년 중국 북경 칭화대학에서는 한중고대건축의 비교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부터 한양대학교 건축학과의 부교수로 재직하며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제강점기에 생산된 건축도면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파악한 논문으로는 <일제시기 건축도면의 보존 현황>(대한건축학회, 2001년)과 <타지부건축소의 기록물 관리와 현존 기록물에 관한 연구>(건축역사연구, 2002년)가 있다. 이들 연구성과는 한국과학재단 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건축도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서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연구성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일제강점기 건축도면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조선통독부의 근대시설 건립과 건축계획의 특징>(주상훈, 서울대박사논문, 2010년)이 있다.

그밖에 건축도면 아카이브의 구축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건축도면 관리의 체계화>(황태원, 한양대석사논문, 1993년), <건축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대한건축학회, 2004년), <건축도면 아카이브 스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정은경, 이화여대석사논문, 2010년), <건축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Aurbrite 34, 2010년) 등이 있다. 특히 Aurbrite에 발표된 논문은 향후 건축도면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성과로서 향후 한국에서 건축아카이브의 구축에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건축도면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전봉희 교수의 주도하에 규장각과 국가기록원의 도면자료에 대한 해제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건축사연구실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자료의 성격상 아직은 대부분의 연구성과가 1945년 이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며 1945년 이후의 건축도면에 관한 연구성과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사 김종업(金重業), 김수근(金壽根)과 같은 인물들의 건축세계를 조명한 서적에서 부분적으로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건축도면과 관련된 학술대회로는 2009년 4월 한국건축역사학회가 주관한 <해제집 발간(解題集 發刊)을 계기로 본 조선-근대기 건축도면>이라는 세미나가 처음이었으며 2011년 10월에는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건축도면 및 설계도구 전시회>와 한중일 건축도면에 관한 심포지엄이 계획되어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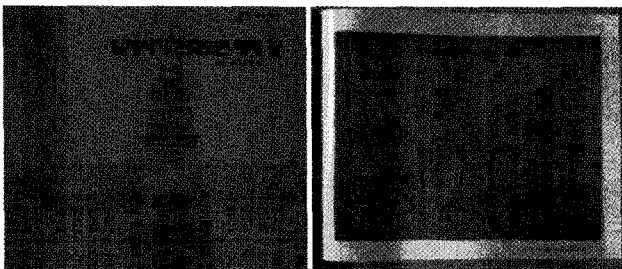


그림1.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의 일환으로 간행된 제4권 의료서관시설편의 표지와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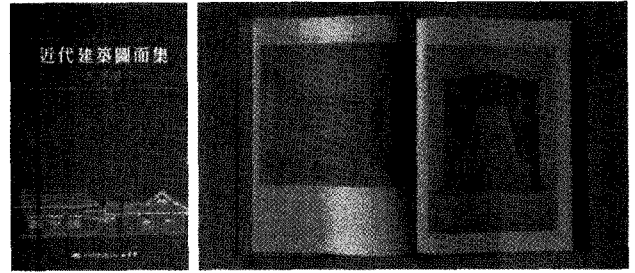


그림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펴낸 <근대건축도면집: 도면편·해설편>의 표지와 본문

건축도면에 대한 기록과 보존

우리나라에서 건축도면의 기록과 보존 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 가운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건축도면 가운데 국가적인 차원의 보존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보존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이러한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보존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도면을 소장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가기록원이 있는데 이 기관은 1962년 내각사무처 총무과 촬영실로 출발하여, 1969년 총무처 산하 정부기록보존소로 변경된 이후 2004년 4월 행정안전부⁴⁾ 소속 국가기록원이 되었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주도하여 건축한 공공건물과 전통건축물 등의 설계원도 26,483매를 소장하고 있어 국내 최대의 건축도면 소장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자료들은 2000년부터 전문적인 도면 보존처리 작업에 착수하였고 2007년부터는 도면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목록화 및 해제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보존처리가 끝난 도면 가운데 선별하여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라는 명칭으로 도서를 간행하고 있다. 이미 간행된 것으로는 학교건축편(學校建築篇, 4,797매 중 선별수록, 2008년부터 11월 30일), 고적(古蹟)·박람회(博覽會)·박물관(博物館)·시험소(試驗所)·관사(官舍)·사사(寺社)·군훈련소편(軍訓練所篇, 3,547매 중 선별수록, 2009년 4월 28일), 법원(法院)·형무소편(刑務所篇, 3,515매 중 선별수록, 2010년 4월 30일), 의료(醫療)·세관시설편(稅關施設篇, 3,208매 중 선별수록, 2010년 12월 28일)이 있다. 그리고 해제작업이 끝난 자료들 가운데 일부를 웹사이트로 구축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

3) 이 전시회와 심포지엄은 한양대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과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준비하고 있다. 전시 자료는 대부분 수원 화성과 관련된 근현대 실측도면 위주이고 세미나의 주제는 <동아시아 고건축도면의 세계와 특징>이다. 한국의 학자와 더불어 중국의 텐진대학(天津大學)과 일본의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서 전문가가 발표할 예정이다.

4) 대한민국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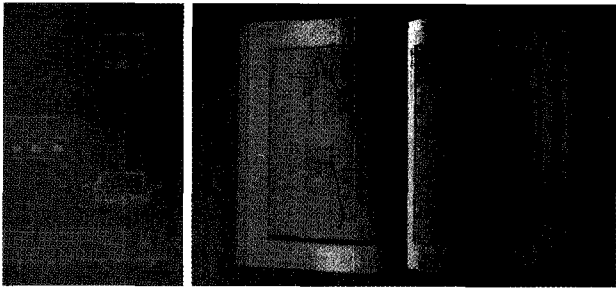


그림3. 한울문화재연구소에서 펴낸 김주태 기증 전통건축도면집의 표지와 본문

능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1945년 이후의 건축도면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건축도면을 다수 소장한 또 다른 기관으로는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이곳은 주로 전통건축과 근대건축 가운데 국가가 발주한 용역을 통해 생산된 건축도면을 납품 받아 소장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의 각 부서를 포함해서 산하기관 모두 2006년부터 시행중인 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생산되는 기록물의 리스트와 기록물 자체를 1년에 한 번씩 대전(大田)에 있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은 상태가 좋은 도면 원본은 자체적인 보존서고에 소장하고 이를 디지털화 하며 보존상태가 안 좋은 것은 디지털화 한 다음 국가기록원에 도면 원본을 이관하여 보존처리를 하고 있다. 기록화 사업은 기존의 문화재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문서와 시청각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이었으나 50% 정도가 진행되었다. 결과물은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의 이름으로 홈페이지가 구축⁵⁾되어 있으며 현재 국가행정망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일반인의 열람은 아직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건축도면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는 규장각⁶⁾과 장서각⁷⁾이 있는데 1945년 이전의 건축도면이 대부분이며 이 두 기관이 소장한 건축도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규장각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71종에 대한 정리를 끝냈으나 그 결과는 아직 책자로 간행되지 않았으며 장서각은 소장 도면 가운데 궁궐 및 주거와 관련된 174종을 수록한 <근대건축도면집: 도면편·해설편>(한국중앙연구원장서주간행(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刊行), 2009년 1월 28일)을 간행한 바 있다.

최근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에서 도면자료를 정리한 서적이 하나 간행되었다. 2권으로 된 <김주태기증전통건축설계도면집(金周泰寄贈

傳統建築設計圖面集)>(재단법인 한울문화재연구원간행, 2010년 10월 15일)이다. 이것은 김주태(金周泰)라는 전직 문화재전문위원이 민간연구기관에 기증한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문화재 조사에 참여하면서 생산한 건축도면 700매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화 이외에 건축도면 자체에 대한 보존처리와 관리에 대해서는 미흡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연세대학교 건축과에 재직했던 김정수(金正秀) 교수의 건축도면을 정리한 <건축가 김정수>(공간사, 2008년 11월 25일)가 간행되어 나왔으며 이 자료는 모두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보존처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945년 이전의 건축도면은 그나마 부분적으로 연구와 보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는 1945년 이후 현대건축과 관련되어 생산된 건축도면이다. 이러한 건축도면은 대부분 개인설계사무소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리와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각 사무소별 차이는 있지만 CAD로 제작된 건축도면이 아닌 것은 디지털화 한 이후 원도를 폐기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사 김수근의 건축도면조차도 자신이 운영했던 건축사사무소 공간에 보관은 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디지털화 했을 뿐 원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목천문화재단(木川文化財團)이라는 민간단체에서 현대건축가들의 건축도면을 수집, 정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필자는 최근 국내 몇몇 건축사사무소의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규모가 비교적 크고 역사가 있는 건축사사무소들도 대부분 동일한 상황이었으며 디지털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원도에 대한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장소와 경비 문제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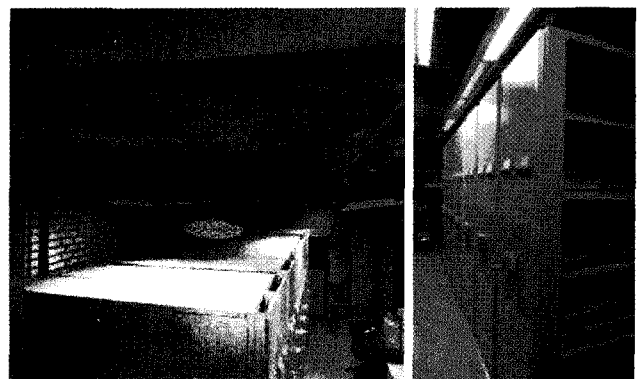


그림4. 공간사 건축도면자료실의 전경으로 프로젝트별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다.

5) 2011년 2월 현재 50,563장 도면을 원본 DWG, DWF, JPG, PDF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6) 1776년 궐내(闕內)에 설치, 역대 국왕의 시문, 친필(親筆)의 서화(書畵)·고명(顧命)·유교(遺敎)·선보(璿譜(王世譜))·보감(寶鑑) 등을 보관 관리하던 곳이다. 1912년 총독부에 참서관실(參事官室)이 설치되어 이들 도서와 관련된 사무는 참서관실로 이관되었고, 1922년 학무국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으로 이관되었는데, 이때 15만 1519권의 책이 이 대학의 도서관으로 옮겨졌다. 이 책들은 1945년 광복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다.

7) 1911년 이왕가(李王家)에 의해 설립된 이왕직도서관(李王職圖書館)으로 장서수는 88,700여 권에 이른다. 1945년에는 미군정법령 제26호에 따라 구왕궁사무처 장서각이 관리하다가 1965년에는 창경원사무소 장서각, 1969년에는 문화재관리국으로 각각 이관되었다가 1981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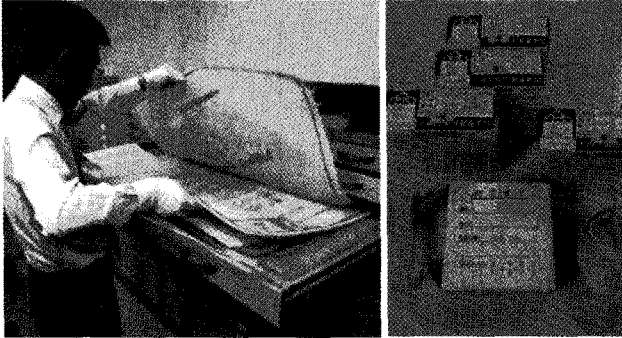


그림5. 국회의사당 건물에 관련된 건축도면과 마이크로 필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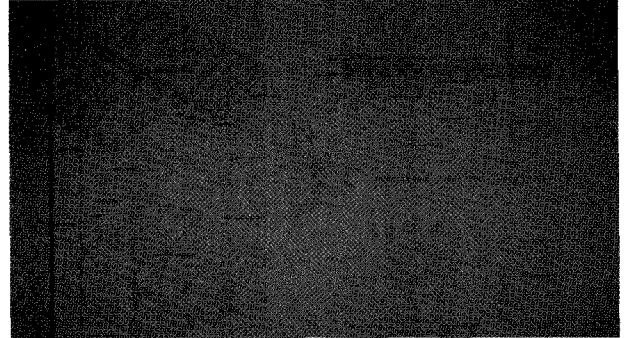


그림6. 삼일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보관중인 건축도면


다음으로 필자가 최근 연구실의 석사과정 학생을 지도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통해 건축도면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이 학생의 논문 주제는 197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초고층 건축물이었던 삼일로(三一路)빌딩이었다. 그러나 이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도면은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에게도, 시공을 한 건설회사 어디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 그나마 건축물을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위해 보관하고 있는 도면원도 일부와 청사진이 남아 있어 겨우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는 국회의사당의 건축배경을 연구하는 학생의 경우였다. 이것은 1970년대 건축설계, 시공, 설비, 재료 등의 여러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이루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다행히 각종 문서기록이 잘 남아 있어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정작 당시 납품된 건축도면은 볼 수가 없었다. 역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맺음말

이상 간략하게 우리나라에서 건축도면의 기록과 보존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현재 디지털화 되지 않은 건축도면의 보존과 관리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분적으로 과학적인 보존처리와 관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역부족이고 특히 1945년 이후 생산된 현대건축의 건축도면은 매우 절박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기관에 제출되는 디지털 건축도면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건축행정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DB가 구축되고 있고 2009년부터 시작된 국토도시건축기

록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⁸⁾을 통해 건축도면 이외의 자료들이 수집, 정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디지털화 되지 않은 건축도면은 소외되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축아카이브 내지 건축박물관이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니면 대한건축학회나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기협회가 중심이 되어 관리조직을 결성하고 공간을 확보하여 건축도면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관심을 가져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차원에서도 건축도면에 대한 재인식과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도면 전시회와 교육, 홍보가 절실하다. 

(이 글에 사용된 도판의 촬영을 허락해 주신 공간의 이주연 편집주님과 국회사무처의 송기형 사무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8) 이 사업은 연간 5억원씩 투입되고 있다.